채권전략 한눈에보는상상인자산전략

1 월 FOMC Preview: 동결 보다 차기 연준 의장 관심

Analyst 신얼 | 투자전략
02-3779-3184
e.shin@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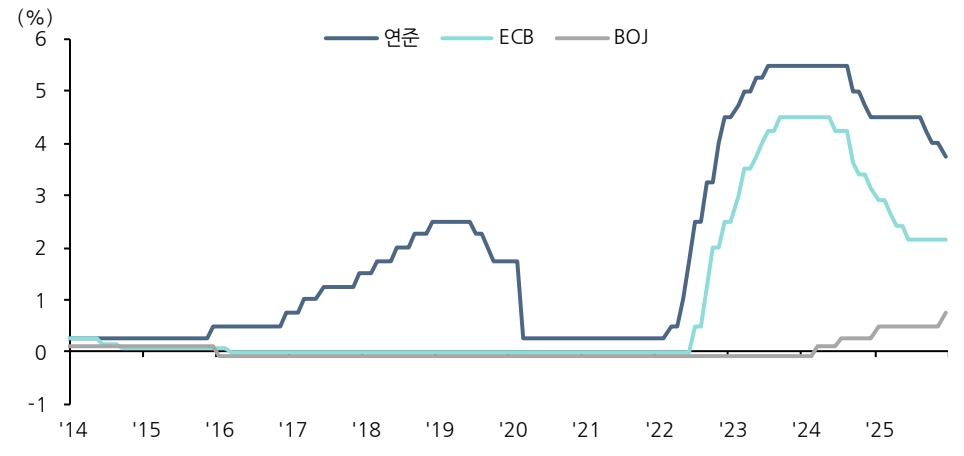
연준 금리 동결을 통한 정책의 속도 조절

2026년 1월 29일 새벽 예정된 연준 기준금리 결정 FOMC는 현재 연준 기준금리에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른 연준의 기준금리는 기존의 3.50~3.75%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9월 이후 연준 FOMC는 3회 연속 기준금리 25bp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인하를 하기 전과 인하 국면 속에서도 다음 인하에 대한 힌트 제시에 상당한 신중을 기한 바 있는데, 금번 회의를 앞두고서는 보다 신중함이 강조되고 있다. 트럼프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관세 정책의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고용시장의 경고음이 나오는 과정 중에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금리 인하의 성격을 지녔다. 동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가운데,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셧다운 이후 재개된 경제지표의 밋밋함

금번 회의에서는 물가와 고용시장에 미치는 금리 정책 조정의 영향력을 판단하고, 또한 자산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사전 차단하는 신중함이 돋보이는 정책 즉, 기존 정책의 유지인 금리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판단이다. 이를 지지하는 것은 지난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하 다수 의견 속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확신 강도가 시장의 인식 대비 강하고 확고하지 못 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재차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가의 추가 안정화 흐름과 더불어 고용시장의 위축이 나와야 하겠으나, 셧다운 이후 재개된 경제지표에서 뚜렷하게 금리 인하를 지지할 만한 지표 발표는 없었다. 금리 인하 국면은 이어지는 가운데, 점진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강조될 회의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Fed,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한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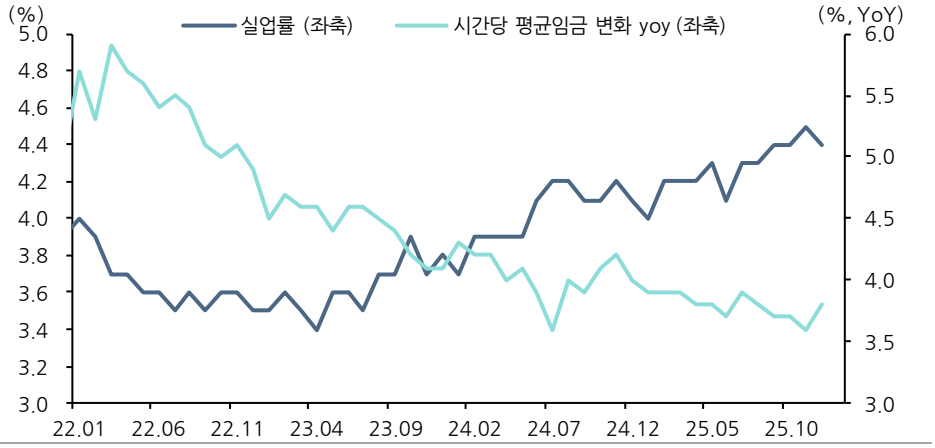
고용시장의 둔화 지속에도 약화 신호 약화

셧다운 이후 발표된 고용지표에서는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점진적 둔화가 확인되고 있다. 12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예상치 7만명을 하회한 5만명에 그쳤고, 직전 2달치 역시 하향 조정되었다. 다만, 실업률이 전월 4.5% 대비 낮아진 4.4%를 기록하며 고용지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반 감소하는 점진적 둔화 국면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물가 측면에서는 11월 근원 PCE가 2.8%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였고 12월 근원 CPI는 2.6%로 예상치를 하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안정화 속에서도 지표 노이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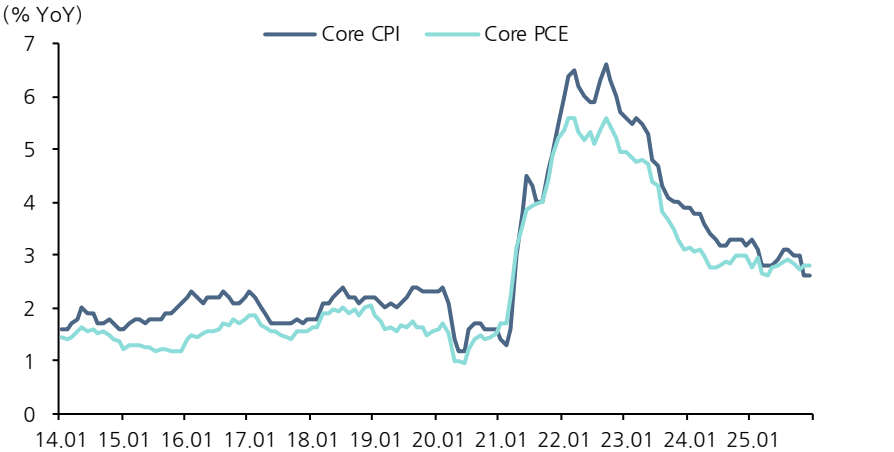
다만, 10월 셧다운으로 인한 가격 조사 공백이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있는 만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표의 혼조세, 물가 안정에도 불구한 일각의 우려 제기와 더불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발표치들은 금리 동결에 대한 시장의 관점을 크게 바꾸지 못하였다. CME FedWatch의 금리 전망에서 지난 12월 이미 금리 동결(3.50~3.75%) 확률은 80%를 넘었었고, 1월 물가 데이터가 발표되자 90%를 일찌감치 넘으며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대목이다.

그림 2. 실업률 및 시간당 평균임금 변화 추이



자료: BLS,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근원 CPI 및 PCE 추이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견조한 미국 경제, 시선은 차기 Fed 의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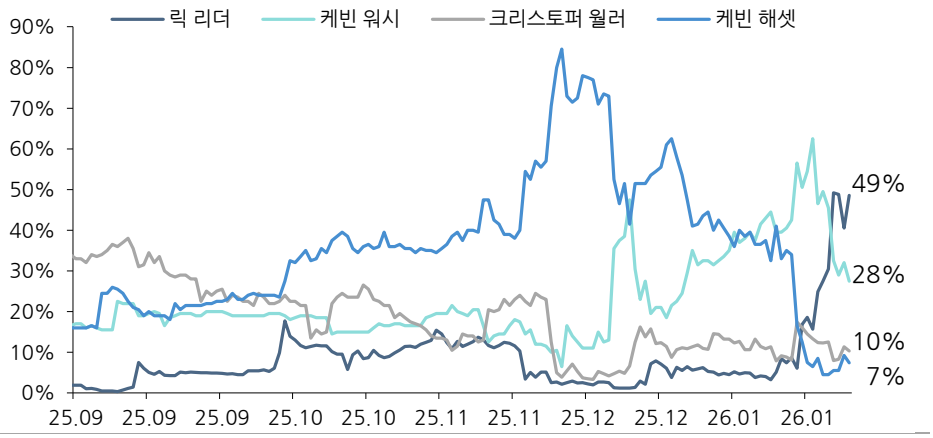
AI발 생산성 향상보다는 미 소비력에 의한 경제 성장세

한편, 미국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견조함을 보여줬다. 3분기 GDP는 잠정치 기준 +4.4% (QoQ, 연율 기준)를 기록하며 속보치 4.3%에서 보다 상향조정 됐다. 또한, 애틀랜타 연은이 전망하는 GDP NOW에서는 4Q GDP가 +5.4%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주차 이후 꾸준한 5%대 성장 전망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경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증시에서는 AI 발 Supply Chain에 대한 모멘텀이 유효하고, CAPEX에 대한 민감도가 고조되었으나, 동 전망치를 통해서는 미국 소비자의 견조한 소비 활동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 동결보다 차기 연준 의장 관심도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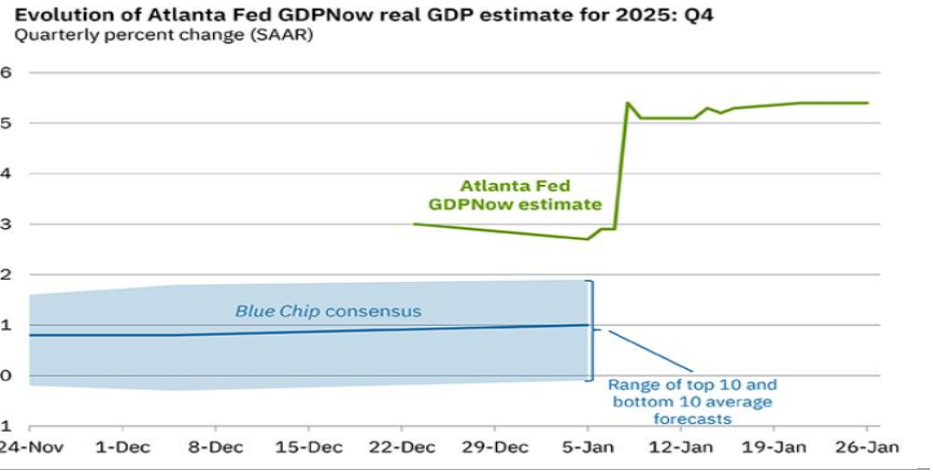
미국의 완만한 경기 둔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미 경제 흐름은 과거와 분명 달라진 미 경제 펀더멘털을 시사할 수 있다. 이에 연간 금리 인하 2회의 전망치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사실이다. 다만, 관건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다. 릭 라이더 블랙록 CIO는 트럼프 면접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후보군 중 1위로 올라섰다. 연준 시스템의 개편안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월가 출신이면서도 트럼프가 선호하는 인물이 될 경우, 시장금리와 차별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4. Polymarket 미국 차기 Fed 의장 조사



주: 조사 결과치는 1/26 기준 / 자료: Polymarket,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애틀랜타 연은 추정 2025년 4Q 실질 GDP 성장률 (GDPNow)



자료: 애틀랜타 연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CME FedWatch Table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MEETING DATE	200-225	225-250	250-275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2026-01-28		0.0%	0.0%	0.0%	0.0%	2.8%	97.2%	0.0%	0.0%
2026-03-18	0.0%	0.0%	0.0%	0.0%	0.4%	15.5%	84.2%	0.0%	0.0%
2026-04-29	0.0%	0.0%	0.0%	0.1%	2.9%	26.8%	70.2%	0.0%	0.0%
2026-06-17	0.0%	0.0%	0.0%	1.3%	13.4%	45.9%	39.4%	0.0%	0.0%
2026-07-29	0.0%	0.0%	0.4%	5.2%	23.8%	43.8%	26.7%	0.0%	0.0%
2026-09-16	0.0%	0.2%	2.2%	12.3%	31.5%	37.3%	16.5%	0.0%	0.0%
2026-10-28	0.0%	0.6%	4.1%	15.9%	32.6%	33.4%	13.4%	0.0%	0.0%
2026-12-09	0.1%	1.2%	6.4%	19.1%	32.7%	29.6%	10.9%	0.0%	0.0%
2027-01-27	0.1%	1.2%	6.3%	18.9%	32.6%	29.6%	11.1%	0.1%	0.0%
2027-03-17	0.1%	1.2%	6.2%	18.7%	32.3%	29.6%	11.4%	0.3%	0.0%
2027-04-28	0.1%	1.2%	6.0%	18.1%	31.6%	29.8%	12.4%	0.9%	0.0%
2027-06-09	0.1%	1.1%	5.7%	17.4%	30.8%	29.9%	13.3%	1.5%	0.1%
2027-07-28	0.1%	1.0%	5.0%	15.7%	28.9%	30.0%	15.7%	3.2%	0.3%
2027-09-15	0.1%	1.0%	5.1%	15.7%	28.9%	30.0%	15.7%	3.2%	0.3%
2027-10-27	0.1%	0.9%	4.7%	14.8%	27.7%	29.9%	17.0%	4.4%	0.6%
2027-12-08	0.2%	1.2%	5.5%	15.8%	27.9%	28.9%	16.0%	4.1%	0.5%

자료: CME FedWatch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신얼)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